

특수유리의 '토탈 서비스 전문회사' 를 향한 고집스런 한 우물파기

(주)제이엠씨글라스

1997년 설립되어 광학원자재 중심으로 국내시장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주)제이엠씨글라스(대표·안한철, www.jmcglass.com)는 오직 특수유리산업 한 분야만을 고집하며 전 세계 우수한 특수유리 제조사들과 연계하여 약 3000여종의 다양한 특수유리를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국내 및 세계로 공급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중국 성도에 합작공장을 통해 특수광학에서 수요가 많은 원자재인 파이렉스(Pyrex)를 직접 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최근 핸드폰에 들어가는 광학원도우 생산에 들어가는 등 종합특수유리회사를 지향하며 힘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제이엠씨글라스는 핸드폰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및 필터, 노광장치, DVD, OLED 등 다양한 광학 및 디스플레이 장비 등에 들어가는 특수유리소재만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특수유리 종류만도 약 3000여 가지가 넘는 다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회사의 진가는 바로 오랜 무역업을 통해 쌓은 정보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이 많은 아이템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신속하게 공급해주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발휘된다.

안한철 제이엠씨글라스 사장은 “단순히 국내 업체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공급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을 잘 만드는지, 어떤 제품이 국내업체에 꼭 필

요한지, 어떤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면 유리한지, 원자재로 들여와야 좋을지, 완제품으로 들여와야 좋을지 등 세세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여 고객들에게 제안하고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이엠씨글라스의 홈페이지에는 각종 글라스 원자재에 관한 데이터들을 올려놓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에서도 다른 유리소재 공급업체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다.

이 모든 것이 이 회사가 공식 출범하기 전부터 안한철 사장이 지난 20여 년간 동종 업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오랜 기간 쌓은 노하우 바탕, 특수유리소재
에 대한 고객맞춤형 컨설팅업무 제공**

1997년 설립되어 2001년 법인 전환을 한 제이엠씨글라스는 서울시 서대문 천연동에 본사와 경기도 파주시와 안산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성도에도 합작공장을 갖고 있다.

주요제품으로는 LCD·PCB·CRT용 노광글라스, LCD 측정장비용 Glass Table, LCD용 Deffusing Glass, 노광필름 측정기판 글라스, 프리즘, Black Light Lamp용 세라믹기판 글라스, 산업용 글라스, 산업용 특수 렌즈, 특수 유리소재 등이다.

‘최선의 노력’, ‘고객감동’, ‘기술개발’이라는 경영방침 하에 일찍이 ISO14001 환경경영 인증 및 ISO9001 품질경영 인증을 받은 제이엠씨글라스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국내 대기업에서부터 연구소들과 많은 중소기업체에 등에 꾸준히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안한철 사장은 “국내에 특수유리소재를 공급하는 동종업체가 몇 곳 있기는 하지만 수많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다양한 고객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찾기 힘들 것”이라고 자부한다.

제이엠씨글라스에서 현재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크게 광학, LCD, 핸드폰, 트로피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잘 알려졌듯이 광학용 유리소재는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등 기초광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전량 수입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간에서 제이엠씨글라스는 유리소재를 공급만 하는 역할을 해오다가 2005년부터 유리가공 등 제조업에 뛰어 들었다. 광학용 소재만 따지자면 그 종류가 300여 가지가 된다. 그중에서도 광학업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BK7’ 이고 특수 광학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파이렉스

(Pyrex)’인데 이 회사에서는 바로 파이렉스 제작을 위해 독일에서 기술을 들여오고 중국과의 합작공장을 시작한 것. 이전부터 이 회사는 DVD, 렌즈, 프리즘 부품들을 가공해서 국내에 납품하는 등 광학용 소재 및 부품, 원자재 등을 토털로 취급해 왔다.

중국공장을 통해 광학사업분야를 추진하는데 이어 국내 안산공장에서는 LCD분야의 가공이 이뤄진다. 안산공장에는 MCT, CNC, 측정용정밀정반, 대형 연마가공기, 폴리싱기 등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노광용 글라스, UV 클리너용 윈도우, PCB 글라스, LCD 검사용 밀판 글라스 등을 가공하여 일본, 홍콩, 대만 등에 수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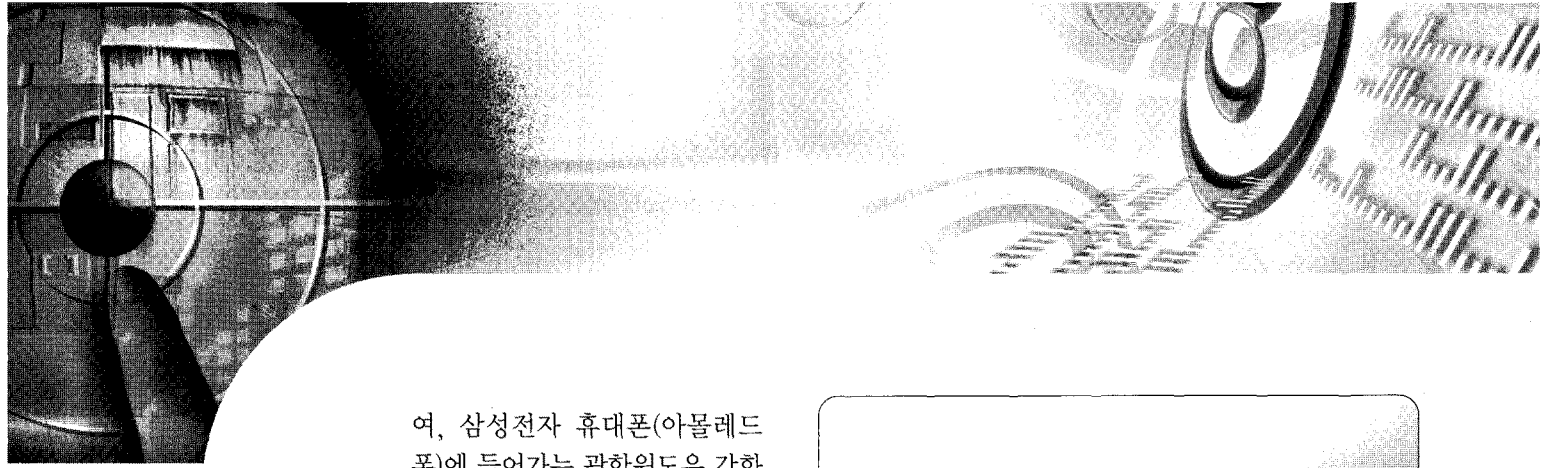
올해 6월부터 시작한 핸드폰사업과 관련하



▶제이엠씨글라스 설립 전 독일의 광학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경력을 쌓은 안한철 사장은 철저한 고객 중심, 기술 개발 의지를 통해 지금의 회사를 있게 했다.



▶제이엠씨글라스 직원들이 함께한 제주도 워크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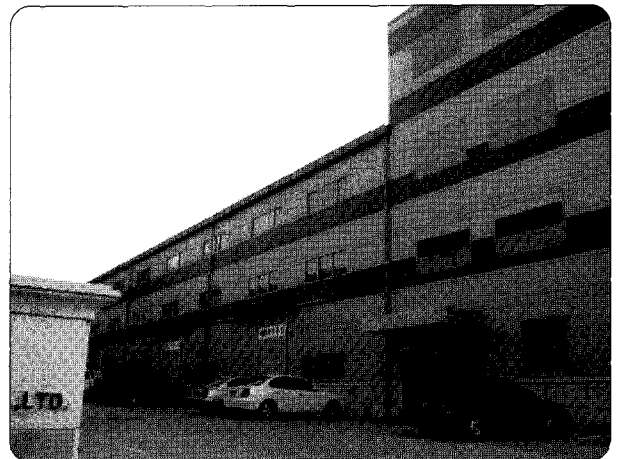
여, 삼성전자 휴대폰(아몰레드 폰)에 들어가는 광학원도우 강화 유리를 제작하고 있다. 현재 월 30만개에서 시작했으나 2010년 말 월200만개 생산을 목표로 최근 안산에 제2공장을 증설했다. 이밖에 골프트로피를 디자인하여 도·소매를 하고 있다. 트로피는 광학용 소재인 BK7을 주원료로 하는데, 트로피 사업을 위해 서울 종로와 경기도 파주에 공장과 물류창고를 각각 두고 있다. 트로피는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

안한철 사장은 “제이엠씨글라스는 4개의 핵심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현재는 소규모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각각의 독립 사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을 뿐”이라며 “특수유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에 해오던 무역에서부터 가공분야까지 더욱 세분화하고 특성화시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특수유리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종합특수유리그룹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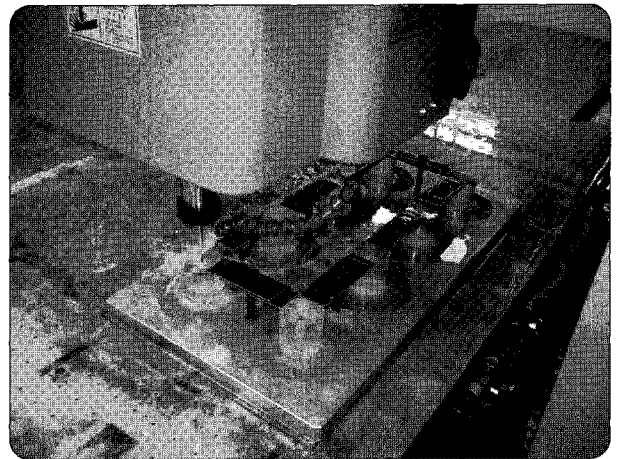
작년에만 매출 70억 원을 기록한 제이엠씨글라스는 올해 매출 9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핸드폰사업 분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2010년 100억, 2011년 200억의 매출을 목표로 활발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안산공장의 외부 전경



▶충청 성도의 합작공장의 신축현장



▶광학업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유리소재인 'BK-7'의 가공 광경